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억 달러 외자 유치 성공

이우영 현대산업개발 토목본부 상무

"철저한 사업성 검증 후에 외자 유치해야"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유치한 1억 달러의 외자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향후 SOC 외자 유치의 봇물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일본의 다이이치강교은행 등 4개 외국의 금융기관과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약정을 체결하는 데 주역으로 활약하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이우영 상무는 이번 외자 유치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향후 추진될 SOC 민자 사업에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외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한 것은 외자 유치 기업의 시공 능력 및 견실한 재무 상태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자를 끌어들이는 일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1999년 12월 다이이치강교은행과 1차 협의 모임을 가진 이후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각 분야별로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제 기준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성 분석은 영국의 Fitch IBCA사, 교통량 재분석은 미국의 URS Greiner사, 설계 및 기술적 사항은 일본의 조다이 컨설턴트사 등의 재검증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간사인 다이이치강교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신킨은행, 영국의 스탠더드차터스은행 등과 7월 26일 1억 달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정 체결 1시간 전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 문안을 놓고 협상을 지속해야만 하였다. 이우영 상무는 "당시 피를 말리는 협상으로 애를 먹기는 하였지만 외국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철저한 프로 정신에 입각한 협상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며 자신과 회사 관계자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우영 상무는 SOC 금융 전문가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의 내로라 하는 민자 SOC 사업들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다.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도 대우건설에 재직할 당시 그가 제안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외 등에서 정식으로 파이낸싱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고속도로 건설 주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건설·운영 기법을 체득하는 한편 국내의 각종 SOC 관련 교육 및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해 터득한 실무 전문가인 것이다. "지난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SOC 민자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디벨로퍼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유럽의 고속도로 3,500여km를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개발 사업 마인드와 사업 창출 능력을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업의 경우 그동안 차입 경영으로 돈을 빌리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금융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비와 사업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소홀하였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우영 상무는 이번 사업의 파이낸싱을 추진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인도 회복이 관건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본 정부의 관계 기관(NEXI)에서는 우리 정부의 관련자를 직접 면담해 사업 지원 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외화 약정 체결을 승인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외자 유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번 외자 유치는 신인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큽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따져볼 때 국내 금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 제시한 각종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외자 유치는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